

## 애교 있게 기도하세요 🐼

어릴 적 교회에서 ‘탕자의 비유’라는 연극을 하던 것이 생각납니다.  
재산을 분배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 식칼을 든 아들이  
“아버지, 내 몫의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” 라며  
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통해 불량한 아들의 모습을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.

그러나 그것도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.  
지금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“나 죽소!”가 아니라 “당신을 죽이겠소!” 하는  
세태가 되어 버렸습니다.

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“하나님,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!” 라는  
식의 험박과도 같은 기도를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.

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소원을 자주 말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 
소원을 좀처럼 말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.  
소원을 자주 말하는 아이에게는 다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 
그 중 절반정도는 들어주게 됩니다.

그러나 좀처럼 소원을 말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 
“너 갖고 싶은 것 없니?” 라고 부모 편에서 오히려 물어보게 됩니다.

아브라함 링컨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.  
링컨이 시골길에서 좋은 마차를 타고 가는 노신사를 만났습니다.  
“신사 어른. 죄송합니다만 저의 외투를 읍내까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?”  
“외투를 갖다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읍내에서 당신을 어떻게 만나  
이 외투를 전하지요?”  
“그것은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. 제가 항상 그 외투 안에 있을 테니까요.”

자기를 읍내까지 실어다 달라는 말을 그렇게 애교있게 말한 것이었습니다.  
노신사는 그 위트와 애교에 감탄하여 링컨을 태워주었습니다.

“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”(마 26:39)라는  
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.

출처 - 꿈을 파는 슈퍼마켓 / 김호식 2002/02/26

☞.....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. 「더 깊은 묵상」 제공